

르브론 제임스·케빈 듀란트, NBA 올스타전 주장

2022 NBA 올스타전에 나설 선수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서부에서는 피닉스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폴과 데빈 부커가 나란히 나선다. 델러스의 루카 돈치치, 유타의 도노반 미첼 등 젊은 에이스들이 올스타에 뽑혔다. 드레이먼드 그린 역시 이름을 올리며 주전으로 나선 스테픈 커리, 앤드류 위긴스와 함께 골든스테이트 소속 3번째 올스타 선수가 됐으나 그린은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전에는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에서는 다리우스 갈란트와 프레드 벤블릿이 생애 첫 올스타 선정의 영예를 누렸다. 갈란트는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 가드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팀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벤블릿은 드래프트 되지 않은 선수들 중 4번째로 올스타전에 나선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22 올스타전은 오는 18일(금)~20일(일) 클리블랜드



▲ 사진=Twitter(NBAAllStar)

스에서 열린다.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가 각 팀의 주장을 맡는다.

■ 2022 올스타 명단

▶ 서부

주전: 르브론 제임스(레이커스), 니콜라 요키치(덴버), 앤드류 위긴스(골든스테이트),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자 모란트(멤피스)
후보: 데빈 부커(피닉스), 루카 돈치치(델러스), 루디 고베어(유타), 드레이먼드 그린(골든스테이트), 도노반 미첼(유타), 크리스 폴(피닉스), 칼-앤서니 타운스(미네소타)

▶ 동부

주전: 야니스 아데토쿰보(밀워키), 케빈 듀란트(브루클린), 조엘 엠비드(필라델피아), 데마 드로잔(시카고), 트레이 영(애틀랜타)
후보: 지미 버틀러(마이애미), 다리우스 갈란트(클리블랜드), 제임스 하든(브루클린), 잭 라빈(시카고), 크리스 미들턴(밀워키), 제이슨 테이텀(보스턴), 프레드 벤블릿(토론토)

한국 축구,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 사진=대한축구협회

한국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2일 '뉴스핌'에 따르면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8차 원정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한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첫 출전한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하면 11번째 월드컵 본선이다.

10연속진출은 전세계 6번째 기록이다. 한국에 앞서 월드컵에 10회 연속 출전한 건 브라질(22회)과 독일(18회), 이탈리아(14회), 아르헨티나(13회), 스페인(12회)이 전부다. 축구 강국으로 불리는 잉글랜드와 프랑스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이날 벤투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아직 모든 과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긴 과정을 함께한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표하고 싶다. 한결같이 응원해 준 한국 국민께도 감사하다. 보답하는 길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두 경기도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4강)을 기록했던 한국 축구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또다른 이변을 노린다. 벤투호는 지난해 3월 한일전 패배(0대3) 이후 A매치 13경기에서 11승2무로 무패 행진을 질주하고 있다.

고진영,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탈환

고진영(27)이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로 복귀했다.

고진영은 지난 31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1계단 상승한 1위에 올랐다. 고진영의 평균 랭킹포인트는 9.51, 벨리 코르다(미국)는 9.48다.

고진영이 1위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9일 이후 12주 만이다.

고진영은 2021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최종전인 CME그룹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2022시즌에는 아직 출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 시즌 개막 후 2개 대회에 출전한 코르다의 랭킹포인트가 하락하며 고진영이 1위를 되찾았다.

코르다는 지난달 31일 끝난 계인브리지LPGA에서 20위에 그쳤다. 18위 이내에 들었다면 1위를 지킬 수

있었지만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순위가 내려갔다.

고진영은 지금까지 114주 동안 랭킹 1위에 올랐다. 벨리 코르다는 총 29주다.

뉴질랜드교포 리디아 고가 계인브리지LPGA에서 시즌 첫 승을 챙기며 3위를 지켰다. 리디아 고는 지난해 4월 롯데 챔피언십 이후 9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했다. 박인비가 4위, 김세영이 5위로 추격했다.

재미교포 대니엘 강이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올라섰다. 대니엘 강은 2022시즌 LPGA 개막전 힐튼그랜드캐이션토너먼트오브챔피언스 우승, 계인브리지LPGA 준우승으로 초반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일본의 유카 사소가 7위, 호주교포인 이민지가 8위를 차지했다.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세계 10위, 김효주가 11위를 유지했다.



EXPO LENDING
Gale Financial DBA Expo Lending
Equal Housing Lender DRE: #02064448 NMLS: #1721928





Sean Kim
Senior Loan Agent



투자용 주택 스페셜 프로그램

신속한 융자 필요하신 분! 융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타주 융자 가능

- Low/ No Document Program
- Conventional Loan
- Refinance/ Rate & Term/ Cash-out
- VA/FHA Loan

NMLS #343413 **213.591.2535**
seanhansu@gmail.com
18725 E. Gale Ave. Ste. 100, City of Industry, CA 91748